

지역 주민에 학교 시설 적극 개방

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이용 규칙 공포·시행 따라 학교 행사 개최시·시설 공사 등 안전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제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키로 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

템 구축 등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부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자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

간당 1,000원으로 낮춰진다.

한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자 인하여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0여억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개 학교에 교당 16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26일 전북연구원과 지역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성공하는 정책사업 발굴

전북대, 전북연구원과 지역 상생발전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 상생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14개 시·군 지역 발전연구소에 전북연구원(원장대 행 김보국)의 힘이 더해져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지난 26일 전북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주요 보직자들과 김보국 원장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환대를 나누고 공식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 14개 시·군과 함께 성공하는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연구사업의 기획과 자문, 연구협력 네트워크 등을 폭넓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로 전북대 저명 교수들을 전북연구원이 운영하는 ‘초빙연구 및 역량교육’에 참여시키고, 전북연구원의 연구원들도 전북대 겸임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 퇴직 연구원 중 연구 역량이 우수한 이들은 전북대 연구교수로 참여시켜 지역 발전과 관련된 학생 교육 등 학문 후속 세대 양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연구원과의 이번 협약은 우리대학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4개 시·군 지역발전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와 국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30일 전북교육청을 찾은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방안 검토”

서거석 교육감,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장들과 간담회서 센터장들, 학생 봉사활동 참여 권장 등 서 교육감에 요구

서거석 교육감은 30일 전북교육청을 찾은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장들에게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원봉사 등

복인원은 2018년 50만8,300명에서 지난해 59만9,336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봉사활동 인원은 20만7,807명에서 9만8,811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다 교육부의 ‘내일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자원

봉사 참여가 사들해지고 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장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권장 △봉사활동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봉사활동 교육 의무화 등을 서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성 함양 등 긍정적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기전대, 축구부 지원사업 연속 선정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2023 대학 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그리고 2023 KUSF 학생 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은 대학 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각 대학의 경쟁력이 있는 운동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스포츠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하고 있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축구 단일 종목으로 3,400만원 상당의 재정 지원과 2,000만원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금은 훈련비, 대회 출전비, 용품비 및 운동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전주기전대학 체육교육지원팀 이종민(운동재활과) 축구부장은 “오랜 기간 축구부 감독 및 코치의 임무를 성실하고 정열하게 운영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도록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힐링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민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4일과 30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고창 운곡탐사르스지 및 원드림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생태습지를 탐방하며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복분자 죽, 딸볼커피 핸드드립 및 원예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성현 총무과장은 “학생·특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 회복탄력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학생해외연수 ‘순항 중’ | 5~6월 일본·싱가포르 등 8개 프로그램에 455명 참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해외연수가 순항 중이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5~6월 학생 해외연수 8개 프로그램에 4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무주교육지원청의 글로벌영어문화탐방이 지난 8~12일과 15~1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진행됐다.

이어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6~19일, 일본 속 백제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4~27일, 김제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기쿠치시와 오사키를 방문했다. 특히 김제시와 기쿠치시의 중학교는 이년부터 화상교류를 진행, 이번엔 학생해외연수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김제지역 중3 학생 28명은 기쿠치시에 있는 미나미중학교를 방문해 사진교류를 통해 작성한 질문에 답하고, 함께 학교급식을 먹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미나미중학교 학생 16명과 김제 학생 28명이 어우러진 짝꿍 댄스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연수단은 교토지역으로 이동해 운동주 시인이 재해했던 동지사대학을 탐방하고, 또 다른 자매도시인 오사카 시야마키에 박물관 견학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보는 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해외연수가 순항 중이다. 5~6월 학생해외연수 8개 프로그램에 4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간도 가졌다. 시야마키에는 일본 최초의 저수지로 김제 벽골제와 같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에서 청소년 해외진로진학탐방을, 군산교육지원청과 완주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은 같은 기간 싱가포르에서 청소년 국외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끝으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애 학생해외진학탐방도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펼쳐진다.

이은경 국제교류담당 장학관은 “5월에 실시하는 학생해외연수는 주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 모든 연수는 사전에 방문국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수와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한 뒤 이뤄졌다”면서 “대거은 후에는 결과발표회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학교는 30일 식품 안전성 및 가공질병 관리기술 향상을 위해 (주)하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가금질병 관리기술 향상 ‘맞손’

전북대, 하림과 산학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30일 식품 안전성 및 가공질병 관리기술 향상을 위해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오봉 총장과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약품에 대한 효력시험 등을 사전에 평가해 위험도를 최소화 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에 적극 협력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지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관련 분야 진출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기술 교육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최대 식품업체를 이끄는 하림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전북대와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산·학 융합 모델과 공공 R&D 성과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 중심의 R&D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북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가치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3차 ‘The 미래교육 특강’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 전북 The 미래교육 특강(3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3시 치명자(성지성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특강에는 사전 희망을 신청한 도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20여 명이 참석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교수는 ‘AI 시대, 학교교육 방향과 교수법’을 주제로 △미래와 학교교육의 대처 질문 재해석 △미래역량과 개념지식의 관계 생성 △AI시대의 교육 △Chat GPT와 교육 등 현장 맞춤형 강의를 펼쳤다.

민원선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특강으로 전북미래교육의 확산과 공감을 위해 학교 현장에 내실 있는 교육 변화가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